

# 기공식 내일인데 흔들리는 '광주형일자리'

### 이용섭 시장 "노동계 함께하자" 노동계 "진정성 없다" 냉담 내년초 건설 본격화... 2021년 4월 완공 하반기부터 양산

우여곡절을 거쳐 광주형일자리 자동차 공장 기공식이 오는 26일 열린다.

(주)광주글로벌모터스는 광주 빛그린 산업단에서의 기공식을 거쳐 내년 초부터 자동차공장 건설을 본격화한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최근 자동차공장 신축업체로 (주)현대엔지니어링을 선정 한데 이어, 23일에는 광산구로부터 공장 건축 허가를 취득했다. 시공사 측은 내년 초 착공을 위해 하도급업체 선정, 공사 자재 발주 작업 등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측은 2021년 4월 30일까지 공장 건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공장 외형이 어느 정도 갖춰지는 내년 10월부터 연 10만대 생산이 가능한 설비라인을 공장동에 구축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 정규직 노동자 1000여명을 뽑고 2021년 하반기부터 경형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현대차로부터 위탁받아 생산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자동차공장이 양산 체제에 돌입하면 직간접적으로 최대 1만2000개의 일자리가 지역에 생겨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들이 인건비 등 원가 절감을 위해 국외로 눈을 돌리는 국내 제조업체 현실과 반대로, 23년 만에 국내에 자동차공장 신설돼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는 노동자 임금을 대기업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그 차이는 사회적 임금(복지 제공)으로 매운다. 대기업 중심 한국 경제의 고질적 병폐인 '하청 쥐어짜기'로 대표되는 원화적 관계를 개선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밑바탕에 깔렸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광주은행, 지역기업 등 35개 기관·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대차와 손잡고 2300억원을 출자해 지난 9월 광주글로벌모터스를 설립했다.

그런데 자동차공장 기공식을 앞두고 사



이용섭 광주시장

업의 한 축인 지역 노동계가 "광주시가 노사상생 정신을 부정했다"며 사업 보이콧 결정을 내리면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지난 19일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에 이어 이용섭 광주시장까지 24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한국노동 광주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노동계에 사업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 18일 윤종해 한국노동 광주본부 의장과 면담을 가진 사실을 공개하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오늘의 상황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시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이 시장은 이어 "시행착오도 있고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를 섭섭하게 한 부분도 있었지만, 노동계와 상생의 동반자로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진정성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며 "노동계 요구사항은 시장인 제가 책임지고 적극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역노동계가 26일 착공식에 꼭 참석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지역노동계는 "진정성 없는 여론전이다. 언론 플레이 멈추라"면서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종해 의장은 이날 광주일보 통화에서 "광주형일자리 사업 성공을 위해 노동계가 지난 9월 광주시에 공개질의의 했으나, 광주시는 여태 물개고 있다"며 기공식을 앞두고는 "노동계를 찾았고 있다" 그러면서 제시한 대책이나 답변도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장은 이어 "공장 시공사 선정, 공사 감시를 위해 시민자문위를 꾸리자고 했는데, 업체 선정 후 시민자문위 구성에 협조하겠다는 식이다"며 불만을 표했다. 노동계는 지난 9월 광주시에 공장 시공사 선정 및 선정 과정 감시할 '시민자문위' 구성, 임원 임금 노동자 임금 2배 이내 책정, 노동이사제 도입, 현대차 추천 이사 경질, 원화적 관계 개선 시스템 구축 등을 공개 요구한 바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10년 이상 노후차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 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 2배로... 중소기업은 2년간 10%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 내용	
<b>소득세법</b>	<b>조세특례제한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로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6개월 적용)</li> <li>● 소득금액 3,000만원 → 5,000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세액공제율 한시상향</li> <li>● 대기업 1% → 2% (1년 간 적용)</li> <li>● 중견기업 3% → 5% (2년 간 적용)</li> <li>● 중소기업 7% → 10% (2년 간 적용)</li> </ul>
<b>법인세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대비 손급(필요경비) 산입 한도 확대</li> <li>● 중소기업 - 기본 산입 한도: 2,500만원 → 3,600만원</li> <li>● - 산입 한도: 6,200만원</li> <li>● 개인 자영업자·중견·대기업 - 산입 한도: 5,000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이상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경유차 제외)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 5% → 1.5%</li> <li>●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 축소 (2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만 세액감면을 혜택 적용)</li> <li>● 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감면율 상향 15% → 40%</li> <li>● 민간 임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과세특례 2022년 말까지 등록한 주택에만 적용 (신설)</li> </ul>

2020년 1월 1일 시행

연립뉴스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 시행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새 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는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된 휘발유차, 경유차, LPG차를 폐차하고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낮춰 준다. 100만 원 한도에서 깎아주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내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설비 투자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1%에서 2%로 상향 조정된다. 중견기업은 기존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공제율이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적용 기간은 대기업의 2배인 2년으로 정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이 신설돼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은 50% 감면한다. 중소기업 접대비의 손급(필요경비) 기본 산입 한도를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

## 18~20세 중증장애학생에 장애인연금 지급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이 내년부터는 장애아동수당보다 많아짐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이들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법령을 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학 중인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18세 이상)이지만, 그간 특례조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대신 수급액이 더 많은 장애아동수당을 받았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을

로 장애인연금 수급액이 장애아동수당보다 많아짐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이들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법령을 개정했다.

올해 기준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의 월 최대 지급액은 각각 20만원, 38만원이다. 김승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그간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던 18~20세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월 최대 18만원의 소득 인상이 효과가 있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연금 수급액이 장애아동수당보다 많아짐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이들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법령을 개정했다.

올해 기준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의 월 최대 지급액은 각각 20만원, 38만원이다.

김승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그간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던 18~20세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월 최대 18만원의 소득 인상이 효과가 있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연금 수급액이 장애아동수당보다 많아짐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이들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법령을 개정했다.

올해 기준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의 월 최대 지급액은 각각 20만원, 38만원이다.

김승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그간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던 18~20세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월 최대 18만원의 소득 인상이 효과가 있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연금 수급액이 장애아동수당보다 많아짐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이들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법령을 개정했다.

올해 기준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의 월 최대 지급액은 각각 20만원, 38만원이다.

김승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그간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던 18~20세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월 최대 18만원의 소득 인상이 효과가 있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GIST, 교통사고 과실 판단 AI 개발

### 과거 데이터로 사고 비율 평가 인공지능 시스템... 세계 최초

교통사고 발생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 자료를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해 사고 과실을 비율을 판단하는 시스템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24일 광주과학기술원(GIST)에 따르면 기계공학부 이용구 교수 연구팀이 AI 기술을 이용한 교통사고 과실 평가 시스템으로 최근 평창 휘닉스에서 개최된 '제1회 쏘카X한국정보과학회 AI 영상분석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AI 영상분석 경진대회는 차량 블랙박스와 사진을 활용한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 관련 신기술 아이디어와 구현을 목표로 하는 대회이다.

이 시스템의 핵심 기술은 사람이 사고 과실 평가에 개입하지 않고 AI가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해 사고 과실을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특히 인간의 노동력이 최소화하도록 AI 네트워크 학습을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를 화질 개선과 라벨링 등 데이터 가공없이 동영상 원본으로 사용했다. 이를 통해 다수의 데이터를 보유한 업체는 추가적인 부담비용 없이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

라벨링은 인공지능 네트워크 학습을 위해 자동차나 신호등 등의 위치를 영상에

표기하는 작업이다. AI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단계다.

이용구 교수는 "개발된 네트워크는 세계 최초의 영상분석 AI 법률 분석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블랙박스 이외에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영상녹화물을 통한 법률서비스에 활용되는 등 인공지능 법률 영상 분석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이용구 교수를 비롯해 박사과정 이성재, 연구원 신호정, 김진수 씨 등 모두 4명이 참여했다.

연구팀은 지난해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추진하는 ICT 융합 산업원천기술 사업과 GIST 인공지능 개발과제의 지원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개발 등 모빌리티 및 AI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팀은 앞으로 차 대 차 사고 외에 차 대 사람, 차 대 이륜차 등 다양한 사고를 분석할 수 있도록 AI 네트워크의 기능을 확장시킬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개발된 시스템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해 사고 즉시 과실 비율을 측정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美 정찰기 2대 한반도 출동...대북 감시 비행

미국 공군의 주력 통신감청 정찰기인 리벳 조인트(RC-135W·위)와 지상 감시 정찰기인 E-8C 조인트 스타즈(J-STARS·아래)가 지난 주말부터 잇따라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연일 공개적인 대북 감시·정찰비행을 계속하고 있다.

/연립뉴스

### 요양병원, 힐링센터 부지/매/매

- 풍암동, 화순 전대병원 10분거리
- 현재 한옥식당 및 찜질방
- 계획관리지역 약3000평 (용적율 40% / 100)
- 보존관리지역 약2500평 (편백나무숲, 산책로 조성가능)
- 매매가격 33억5천만원 (용20억포함)

### 힐링센터 공동투자자 모심

- 개인명의 재산을 법인으로 100% 전환 후 지분 50:50
- 공동대표 등기 후 투자자께서 100% 운영
- 투자금액 13억5천만원 (힐링센터 시설 리모델링 비용)

**소유자 : 010-7570-7525**  
(나주시 남평읍 풍림죽림길 86)

### 광주시민을 위한 2020년 부동산시장 전망과 "완전정복 세미나"

시기가 변하면 투자전략도 변해야 한다.  
혼란기시대에 부동산 투자에 정곡을 찌르는 알찬강의!

2020년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효과적인 투자전략을 찾을 수 있는 특별강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광주권 아파트 전망과 틈새 성공전략

강사 정영수 경영학박사 (부동산마케팅 전공)

- 한국부동산정보연구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광주, 전남지부장
- 전 전남대 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전남대 20년 부동산강사
- 한국생산성본부(KPC) 위촉교수, 공무원연수원 등 초청강의

- ◆ 일시: 2019년 12월 27일(금) 14시~16시
- ◆ 장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동 1161-7 5·18기념관(주차장 완비)
- ◆ 후원: (사)한국산업교육원 (주)토담건설
- ◆ 특전: 참가자 추천 후 정관장 홍삼, 전기스토브, 햅쌀 등 증정 ※ 선착순 99명 전화접수 마감

**전화 062) 376-7605** 010-9911-7605

###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 투자·매도·교환

- 원산동 돌고개역 인접 소방도점 2중 주택 106㎡ 집 112㎡ 광방 등 1억4천
- 전원주택 적합 영광군 백수해안도 인근 1130㎡ 전망 좋은 1억3천
- 서구 마곡동 도로점 378㎡ 장기투자에 좋은 대지 5억
- 남구 원산동 원산아파트 부근 664㎡ 주택 124㎡ 4억3천
- 전북 부안군 백산면 소재지 상업지 706㎡ 무인텔 등 적합 교환 가능 2억
- 목포시 외달도(일동) 329평, 638평 투자전망 최고 평당 23만원
- 영광군 영산면 신성리 2648㎡ 주택 좋은 전원생활 적합 1억7천
- 함평군 손불면 신림리 9143㎡ 집 67㎡ 귀농생활 적합 2억
- 별장 영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화진리 450㎡ 건평 110㎡ 매도 2억8
- 나주시 다시면 광목길도로 4323㎡ 유통시설·청고 공장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25억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평동 (노대동 노인간담터) 부근 대지 652㎡ 남향 가격조정 가능 5억5천
- 남구 덕평동 산10000㎡ 사할·화가 화실·작가 작품 활동 적합 건물 67㎡ 5억

#### 상가 건물

- 백양사외 내장사 사이 추경개포 403㎡ 가계 197㎡ 커피숍·편의점 적합 1억4500
- 서석동 조대일 4층 상가 땅 405㎡ 건물 919㎡ 임대 보증금 6천 월 280, 12억
- 양양동 아파트단지 205㎡ 매입 2억 창고 사무실 적합 은행 7천 매도 1억6천
- 중앙로 4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200 매도 26억
- 농성동 상공회의소 뒤편 소방도점 상가주택 땅 156㎡ 건물 140㎡ 4억2천
- 양양동 아파트 단지 인근 땅 1124㎡ 건물 1733㎡ 전세 7천 월 680 임대 21억
- 유동 신축커피숍 대지 73㎡ 2중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교환 3억6천
- 북구 임동 모델 땅 318㎡ 건평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 특급 물건

- 광산구 북룡동 그린벨트 3002㎡ 도로점 투자처 최고 5억5천
- 목포대부동 정계면 도로점 2중주거지 땅 4413㎡ 건평 597천 394천 매도 4억6천
- 화순군 동면 서성제 무등산 밑 광주 인근 최고별장지역 은행 2-3억 있는 별장상가 건물 원룸·대지 등과 교환원, 매도는 5억-7억임
- 구례군 구례읍 서시천변(광의면) 11050㎡ 다세대·빌라·요양시설 적합 14억5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 옆 문앞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2-4306